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9월 14일 (제75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평화통일기도성회!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섰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기도와 열정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주셨다.

이 역사가 시발점이 되어 이 땅에 반드시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봉우컬럼

친구 노력아! 고맙다

아~ 참으로 멋져부러. 역시!

나의 동역자 예수중심교인은 위대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적과 믿음을 보여준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집회가 있기까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의 손길이 녹아내

림을 알기에 더욱 위대했다. 난 오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또한 그날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된 작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잔치 끝나고 도적 든다'는 옛말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더욱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불을 밝혀야 어둠이 근접할 수 없기에 깨어있어야 함을 명심해

야 한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면류관 벗어 주님께 드리고, 썼다고 자랑 말고 더욱 낮아져서 사랑의 법,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서 저~북녘 땅 심장부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꿈꾸어 보자. 사랑 속에만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기르며 준비하자. 이를 내 가정에서부터 이뤄보자. 내 가정이 튼튼해야 우리의 삶이 신바람난다. 또한 기업과 교회와 국가가 튼튼하다. 우리 스스로 분쟁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하자. 분쟁은 멸망이요, 사랑은 생명이 약동하며 기쁨의 춤을 불러오는 묘약이다. 우리 이제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보자. 반드시 이 땅에 평화의 종소리가 사랑을 타고 울려 퍼질 것을 확신한다. 사랑과 평화만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만드는 보약이다. 우리 먼저 사랑하자. 이웃의 고통을 사랑으로 덜어주자. 함께 자유와 평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가정에 주님 축복을 기원하며!

2014년 9월 9일 朋友 이초석 목사

역시 우리 주님!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가 휴대폰으로 멋진 집회 장면을 보여준다. 집회 장소 앞 건물옥상에 설치된 카메라로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영상을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저장하여 보여준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이란 생각을 했다. 마치 그림 같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주님이 보고 계실 텐데,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머리가 어쩔한 느낌이다.

서울시청광장, 그곳은 광장으로 조성된 이후 수없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크게는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물결과 함성이 넘치기도 했고, 각종 집회 및 시위 장소로도 쓰이며, 부활절 연합예배, 근자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때 천주교인들이 그곳까지 운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 모여 기도와 찬양의 물결로 수놓았다.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 마음껏 외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꿈같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꿈같은 일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놀랍다.

많은 긴장과 기대감이 얹힌 심정으로 예배는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간단명료하고도 간절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심령 속에서 터져나는 생각, ‘아, 우리 주님은 역시 평화통일보다 영혼구원이 더 중요하시구나!’였다. 평화통일을 위해 모인 무리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터진 처음 메시지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고통 받고 살아야 한다.” ‘나는 내가 이런 자리에 설교자가 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역시 우리 성령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담았다. 그렇다. 평화적으로 통일될 조국도 없어질 열국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수없는 집회가 있던 곳이다. 누가 이처럼 원색적인 복음을 외쳤을까? 누가 예수님의 새 계명이신 서로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고, 평화는 사랑이라는 부모 밑에만 나올 수 있는 자식이라고, 여야도, 노사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부자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고 목청 높여 그 곳에서 외쳤을까? 너무나 아

름답고 멋지고 감격스러운 예배였다. 꿈꾸는 듯 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천사들에게 남북의 평화통일을 속히 이루도록 도우라고 명령하셨을 것이다.

이번 집회를 위해 추석을 뒤흔치고 너무나 수고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동역자 주의 종들에게 무어라 할 말이 없고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도 지방에서도 멀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찾아오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노심초사 애쓰신 우리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시대 목사

평화통일 기도성회 토크(Talk Talk)!!

◆ 우리나라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는 설레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뒤흔드는 듯한 벅찬 감동이였어요~~~ 목사님 정말 멋졌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와 번민을 하느님께 따라 걸작을 넘어 명작이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하나님께 드린 명작을 통해 배웠습니다.

◆ 목사님~ 어제 시청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나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을 추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요 ♥♥♥♥

◆ 목사님, 이런 큰 역사를 우리 교단이 해내었다니,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지만 실감이 안 납니다. 기도의 위력!

우리 교단의 위력! 우리 교회와 교단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두요~~.

◆ 할렐루야! 우리 교회이기에 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성회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 뜨거운 햇볕은 집회 열기에 묻혀버렸고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뿐이었습니다! 넘 행복했고 목사님을 보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 지난 여러 달 동안 기도하시며 진두지휘하신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은혜롭게 마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이 역사의 현장에 저도 동참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 목사님, 이렇게 큰 영광의 자리에 크게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

사드립니다. 또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숨은 일꾼들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있었음을 그분들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으로 위대한 평화통일 집회였습니다. 총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간절한 기도와 명작을 만들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하셨습니다. 총회장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 교단은 조국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걱정 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해외집회에 건강이 걱정됩니다. 해외집회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크신 역사 이루시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시청 앞이 짝 찼네. 나는 사진도 보기 전에 성공 축하했지.

◆ 목사님, 어제의 감동이 지금까지 가슴 뭉클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 총회장 목사님! 우리 교단의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중고대학 청년들이 있어 미래가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회장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통일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 평화통일 기도성회,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수십만이 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도록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걸음 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목사님, Fantastic!

기초는 한번으로 다져지지 않는다

2014년 9월 8일 오후 3시.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가 준비해왔던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은혜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공연들과 함께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집회의 키워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황금률인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유와 평화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수가 되

어 흘러넘쳤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사랑을 근간으로 한 평화통일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65년의 분단 조국이 평화롭게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들처럼, 우리도 통일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때가 이르러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결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 성공

적으로 치러진 기도성회를 평화통일의 서막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성스러운 기도모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의 성공은 완벽하고 튼튼한 기초다지기부터 시작한다. 중학교 시절을 어영부영 보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금방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부족한 빈틈을 채워야하는 완벽한 기초 다지기 학습이 끝나야 비로소 성적 향상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9·8 평화통일 기도성회

가 통일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눈으로 통일을 목도할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며 한 반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목사님의 찬송시-사론의 꽃 예수-가 우리의 눈앞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한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신앙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자유



평화통일 기도성회(2014. 9. 8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자랑스런 예수중심인이여!!

민족의 대명절인 9월 8일 추석, 수많은 인파가 서울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평화통일이라는,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음을 믿는다. 이 시간과 이 순간이 내 인생뿐 아니라, 교단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기억될,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서 연주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소리와 찬양 소리. 이 순간, 예수중심인이란 이 소리와 광경에 감격하지 않을 이

가 있을까? '아름다운 이 강산에'를 부르는 내내, 그리고 예배시간 중 순간순간 감격에 젖어 흐르는 눈물을 수없이 훔칠 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것은 늦더위가 기승인 9월의 피약별 속에 집회가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서늘한 바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새삼 예수중심인임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며, 그 선하신 뜻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교단과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우리 교회 또한 이초석 목사님을 필두로 다른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라고, 이루길 노력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교

회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온 모든 예수중심교인들을 보며, 우리 교단이 예수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행동과 결을, 생각과 소원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고민과 인내,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중심인이라 하겠다. 서울 한가운데서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외친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짧은 기간 집중해 집회를 준비한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청년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회 준비로, 또 전도를 위해 애쓴 예수중심인들이 자랑스럽다. 많은 비용과 땀과 고민이 들어간 이 기도

성회를 배설한 이유에 대해 목사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 민족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평화통일을 원하십니다. 이 일은 살 만큼 산 내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이 강산을 물려주려 이 성회를 배설했습니다."는 말씀에 더욱더 평화통일을 열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2014년 표어, 복 받는 한 해가 되자. 우리는 분명 또 하나의 큰 복을 받았다. 이 큰 역사의 순간에 동참했고, 분명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꿈같이 평화통일을 달성함으로 이 큰 역사에 방점을 찍길 기도한다.

문천명



- ♥ 평화통일 우리가 앞당긴다 (서울 김유경)
- ♥ 예수중심인, 남 좀 짱인 듯 (병점 신현명)
- ♥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서울 염영숙)
- ♥ 주님의 파워, 교단의 파워 (부산 김보약)
- ♥ 우리 교단의 저력 최고 (진애 최시영)
- ♥ 하나님 멋져부려 (배방 우순성)
- ♥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서울 문지은)
- ♥ 금강산에서 아메리카노를 (광주 김예지)
- ♥ 통일을 향한 평화의 외침 (양주제일 정민우)
- ♥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할 감동 (서울 이삼숙)
- ♥ 통큰 기도, 하늘문 은들다 (안산 김소대)
- ♥ 평화통일 Coming Soon! (인천 김성은)
- ♥ 주님이 만든 역사적 사건 (서울 박소영)
- ♥ 하나님의 골작품 (인천 김유미)

- ♥ 열 글자로 표현 못할 집회 (서울 황주원)
- ♥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네 (부산 이은충)
- ♥ 예수중심 멋져부려 (파주 김예린)
- ♥ 감동, 은혜, 열정 (서울 신유미)
- ♥ 상상도 못한 감동 그 자체 (서울 하재원)

- ♥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광주 국승룡)
- ♥ 기도는 진짜 이루어진다 (서울 강신)
- ♥ 사랑으로 평화통일 (인천 김나리)
- ♥ 우리나라의 터닝 포인트 (서울 장서연)
- ♥ 느낌 아니까! 하나님 역사! (인천 박지소)
- ♥ 사랑으로 평화통일 (인천 김나리)
- ♥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 평화통일 이룬 걸 후손들은 알까? ('명랑' 수봉 박보검)
- ♥ 평화통일 예비다 (대전 하다빈)
- ♥ 드루와, 평화통일 드루와! (대구 강모현)
- ♥ 감사 감동 감격 기도성회 (수원 정빛나)
- ♥ Let's go 평화통일! (장성 오명철)
- ♥ 북한에 예수중심 깃발을! (미국 김문식)
- ♥ 우리기도로 유전선 무너진다 (순천 김근철)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자 토크!

- ♥ 대박!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주 정광용)
- ♥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서울 박한규)
- ♥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서울 이은성)
- ♥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산 박성계)
- ♥ 꿈같이 이뤄질 평화통일 (인천 김희현)
- ♥ 평화통일 초석이 된 집회 (서울 이소연)



사랑으로 평화통일 대비하자

얼마 전, 나는 교인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로 예수중심교회 성도분들과 "남북 평화통일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설문 조사를 했었다.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무관심하게 지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던 중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이건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아닐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안도하였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남북 분단의 산 증인,

곧 6·25 참전 군인이셨다. 남북통일에 대해 물어보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한반도가 통일되도록 가만히 있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결실을 얻는 법이다.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준비해야 한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꾸념만 늘어놓겠는가? 또한 자신의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들에게 면목이 서겠는가?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인 부름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 나는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았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애국심 넘치시는 이초석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수중심교회의 성도님들이었다. 나는 교인은 아니지만 열렬한 그 마음에 합

심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흘러넘쳐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반도로부터 세계만방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는 그날이 올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싶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고전13:4).

김성일